

우리가 신문의 경제면을 뒤적이다 보면 늘 알
듯 모를듯한 갖가지 경제문제들을 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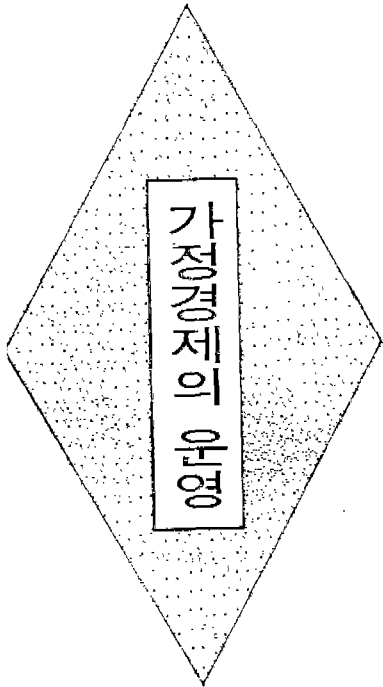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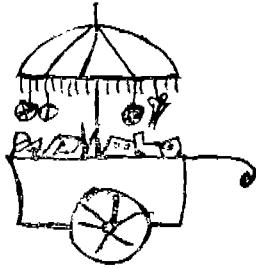
인간생활과 경제문제는 가장 밀접한 관계라 볼 수
있으나 자칫 외면하기 쉽다. 날로 경제수준이 높
아지는 우리의 현생활에서 잠시라도 경제활동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리라 보고, 本誌는 이번호부터
특집으로 「경제문제 시리즈」를 마련, 우선 여성이
운영해 나가고 있는 작은 테두리의 가정경제에 대
해 그 운영방법을 알아 보기로 한다.

가정경제의 발전은 곧 국가경제발전의 지름길이다.

<편집자 誌>

오늘날 경제활동은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의 2가지로 나
누어 생각하게 되었다. 즉 식량을 생산하고 의복을 만들고
기계를 만드는 등 물품을 생산해내는 측면과 이러한 물품
을 구입하여 생활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소비면으로 구별
할 수 있다. 이 두가지 면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
요한 요소이며 생산과 소비가 없다면 우리는 생활해 나가
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계속적인 소비와 생산활동은 항상 균
형이 잡히므로서 우리들의 생활은 안정성을 가져오게 되므
로 생산과 소비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
된다. 예전에는 자가생산 자가소비를 하여 모든 생산과 소
비는 가족단위로 이루어졌으나 과학의 발달과 기술의 발
달로 우리들의 생활방법은 분업화 또는 전문화 되어 생산
을 맡아보는 사람은 가장 좋은 물품을 빠른 시일내에 다량
만들어 비교적 싼값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그
러므로 소비자는 모든 물건을 자기집에서 생산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대신 여러가지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
입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다.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생활방법으로 살아가게되는 것은 경
계발달에 따라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생활방법이며 주부의
역할은 물품을 생산해 내는 면보다는 물품을 구입하여 소
비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생산품의 다량화와 과장된 선전과 유행으로 말미암아 가



여성저축생활중앙회회장
현 기 순

정생활을 담당하고 있는 주부는 올바른 소비생활의 방향을 알아서 계획적인 생활을 시도하여야 한다. 주부는 올바른 소비생활을 하기 위하여 가정생활 필수품을 중심으로 한 기초지식을 알아야 하며 물품선택과 물품에 대한 평가를 하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 진전한 가정경제를 이룩하려면 주부는 항상 새로운 물품지식을 갖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우수한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올바른 지혜를 전달하고 올바른 소비생활을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 대도시 가정주부들의 생활을 알아보니 75% 이상의 가정에서 주부가 가정경제를 전담하고 있으며 가족의 소비생활을 책임지고 있다.

경제발전으로 인한 주부의 역할과 위치는 가사담당으로부터 소비생활을 담당하게 된 가정관리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발전이 가장 빨리 이루어진 미국사회는 20세기 이후에 생활양식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 원인은 증가해 가는 공학의 발달에 있다고 생각한다. 즉 19세기 말엽부터 시작된 기계문명의 발달로 개인생활이나 국가경제발전면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이것이 부유하고 풍부한 나라로 만든 원인이 되었다. 미국은 영토면에서 보면 전세계의 5%를 점령하고 있으며 인수도 세계의 5%를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면에서 보면 전세계 공장제품의 50%, 금융계 수입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은 다른나라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부유한 국민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여러가지 기계와 가정기기의 발달은 가정주부들에게 가사노동을 간소화 시키고 주부들로 하여금 수입증가 또는 새로운 지식습득 등의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여성의 시간과 노력이 생산면에 제

공됨으로써 가정경제는 풍부하게되고 여기에 따라 소비생활을 알뜰하게 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어느나라에서나 경제발전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복지 증대에 있다고 본다. 복지의 증진은 소비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의 동기는 소비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가계는 원칙적으로 소비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은 생산의 주체라고 생각된다. 기업에 있어서 생산의 뒷바침을 하는 것은 자본형성이며 이 자본형성은 가계수입에서 소비지출을 하고 남은 돈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계에서 소비지출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본형성율이 저하되어 경제발전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소비지출의 비율을 보면 해마다 8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막대한 소비율로 인하여 결국은 자본형성을 그만큼 하자 못하게 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비생활을 경제발전과 관련시켜 생각하여야 하며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비생활의 방향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후진국에서는 막대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부양가족이 많으므로 소득수준은 낮고 소비율은 높아지므로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형성을 하는데는 주부의 소비절약이 요청되며 누구보다도 소비생활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수준이 높아지면 오히려 자본형성을 이룩할 수 없게 되므로 변화해가는 사회경제 발전에 알맞은 소비절약의 생활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32개 도시를 대상으로 1,600가구의 가계조사를 하여 소비수준을 알아본 결과 연중 전도시 전가구의 가구당 월평

.....

균 소비지출은 34,970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5,020원이 증가하였다. 소비지출 내용중 식생활비는 41.0%를 지출하였고 주거비는 18.8% 광열비 5.4% 피복비 9.4% 그리고 24.5%가 잡비로 지출되었다.

연중 잉겔계수는 41.0으로 전년에 비하여 0.5%가 증가된 것이다. 식생활비를 주식과 부식의 비중으로 보면 주식이 43.1%이고 부식이 45.8% 나머지 9.1%가 과자 과일 음료로 지출된 것이다. 전년에 비하여 주식비가 0.2% 증가되었고 과자 과일 음료가 1.2% 증가 되었으며 부식비가 1.5% 감소된 것이다. 전생활비중 피복비와 잡비는 해마다 증가된 경향이 있으며 최근 주거비에 있어 갑자기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가계지출의 구성비의 변화는 소비생활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주부가 사용하고 있는 가계부를 통한 소비지출의 경향을 알아보니 각 달의 수입액이 동일하지 않은 것은 가정마다 임시수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0월 11월 12월이 수입이 많은 달이고 1월 2월 3월이 수입이 적은 달로 나타났다.

식비는 11월에 가장 많이 지출되었고 이것은 김장준비로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광열비에 있어서 10월이 가장 지출이 많은 것은 월동준비에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교육비는 3월 9월이 가장 많은 것은 중·고·대학생의 공납금 지불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잡비는 소득이 높은 가정에서 많이 지출되었고 12월이 가장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우리나라 생활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9월부터 11월에 걸쳐 각 비목별로 지출이 많으며 2월, 4월, 5월, 6월은 생활비 지출에 있어 가장 적게 지출된 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9월부터 11월의 많은 생활비를 위하여 1월부터 8월까지 조

급씩 정립하여야 한다. 오늘날에 있어 새로운 기계와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을 변모시켜 주고 있으며 점차로 기계화 되어가는 생활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생활의 방식과 형태가 변화되어가는 몇가지를 알아보면 첫째 현대가족은 도시집중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족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거주지를 옮겨가고 있다. 이것은 생산력이 농장으로부터 공업생산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며 농업인구는 줄어가고 공업인구가 증가 되고 있다. 둘째 현대가족은 이동이 심하다. 직업의 형태가 많아지고 우리들의 생활이 가족의 직업에 따라 쉽게 이동하는 생활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셋째 가족중심의 활동이 점점 감소되고 식구마다 직업의 종류가 다르고 직장이 다르므로 가족들의 생활은 분산되며 부모와 자녀들의 생활은 대부분 짝밖에서 보내게 된다. 그러므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같이 즐기기가 어렵게 되었다. 넷째, 가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전보다는 오랜기간을 학교에 다니게 되며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가족중 누구보다도 많은 생활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주부의 생활이라고 생각된다. 주부는 집안에서 하는 가사일 이외에 직업을 가져 돈벌이를 하게되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옛날과 달라졌으며 이에따라 여성교육의 방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가정에서 지역사회 또는 직장에서 여성의 역할은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내용도 달라졌으며 여성들의 능력과 기술을 발전시켜 생산면에 기울여야 되므로 여성의 또하나의 역할이 가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소비결정에 대하여 책

인을 저야 할 사람은 가정주부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주부는 물품을 사들이게 되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성들의 소비경향은 국가소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주부의 소비형태는 하나의 국가소비형태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여성들이 소비면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물품을 생산하려고 여성들의 기호를 조사하고 물품의 모양 색깔 구조 등을 연구하고 있다. 여성들은 가정의 경제관리면에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옛날에는 남편이 벌어서 남편이 사오는 물품을 가지고 생활한 해오던 것이 남편이 벌어들인 돈을 집안에서 현명하게 지출을 하는 한편 주부도 수입증가를 위하여 맞벌이를 해야되며 주부의 일은 2중 3중으로 늘어나고 있을뿐 아니라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종류가 많아지고 가족들의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현명한 소비생활을 하려면 주부는 반드시 소비생활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부(여성)는 변화되어 가는 소비생활의 형태를 알기 위하여 반드시 소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번천하는 소비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정

보사회이며 세로 개발되는 [상품의 종류에 대한 정보의 보급을 제빨리 받도록 할 것이다. 정보의 내용은 상품의 질량 가격 그리고 구입과 사용에 관한 것 불량상품 등 상품 및 경제생활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각 가정의 소비는 국가경제와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경제상태가 원활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봉급을 받게되어 이러한 수입으로 말미암아 상품과 기구를 구입하게 된다. 기구나 기계를 구입하는 순서나 또는 구입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돈의 마련, 구입하는 방법 등이 모두 주부의 지식과 판단에 의하여 바르게 취급될 때 가정의 소비는 올바르게 되며 국가경제발전도 순조롭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들의 소비생활은 국가경제발전과 직결되고 있으며 우리들의 소비형태는 우리나라의 자본형성에 큰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늘어나는 주부의 역할을 올바르게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나의 가정의 경제운영을 반성하고 소비형태를 올바르게 하도록 다같이 노력하자.

자원 봉사대 조직

• 미취업회원에게 권고함 •

급변하는 국내의정세에 처해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현실을 그냥 방관하고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어 국가사회에 공헌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가정에 계신 여러분을 부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미취업회원에게도 알려 소속지부에 등록해 주시면 비상시 지역사회 봉사에 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방법은 성명,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셔서 대한간호협회(중구쌍림동88외7), 또는 소속지부로 연락해 주십시오.